

'지역 교육을 상상하라'... 전북교육상상포럼

지역교육 협치 체제 구축·전북교육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제안

전북교육 10년을 성찰하고 전북교육 미래를 전망하는 '2022 전북교육상상포럼' 제3차 포럼이 16일 전주비전대 비전컨벤션홀에서 전북교육의 발전에 관심 있는 교육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교육상상포럼에는 전북교육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온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이 공동 주최하고, 풀뿌리지역교육연구회 등 14개 교육연구회가 함께했다.

2022년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고 지역 분권과 지역교육 자치가 확대되는 시기에 지역교육을 상상하라는 주제

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역교육 자치와 협치,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지역사회 돌봄과 교육복지' 세 분야에 관한 발제와 원탁 토의,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황호영(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22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 국가 교육 개혁의 큰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교육 자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며, "전북교육상상포럼과 같이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협치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모색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주중일(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대표

는 '지역 교육과 마을 교육'을 주제로 지역교육과정을 위한 범도민 협의체 구성과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역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 이러한 협력을 지원하는 마을교육 활성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류정아(풀뿌리지역교육연구회) 회장과 조창숙(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대표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의 협력 강화,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중간지원조직인 지역교육통합지원센터 설립과 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교육과정의 지

원 강화를 제안했다.

임은하 전주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는 '지역사회 돌봄과 교육복지' 분야 발제에서 최근 가족위기가 증가로 인해 아동 돌봄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전북 아동 빈곤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전북 아동 실태를 바탕으로 교육복지 종합 대책 수립과 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언급했다.

한편 전북교육상상포럼 추진위원회는 2022년 지방자치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있는 시기에 진행된 1, 2, 3차 전북교육상상포럼을 통해 교육자와 도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전북교육정책과 의견을 모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로스쿨 최다 합격자 배출 '쾌거'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지난해 이어 올해 10명 합격... 감점평가제도 합격성과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학부장 강문경)가 202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공공인재학부는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전북대와 전남대, 원광대 로스쿨 등에 총 10명이 합격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후 두 번째 성과다. 이에 따르면 혁신지원사업단의 지원과 공공인재학부와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진행한 로법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생 지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치러진 제32회 감점평가사 시험에서도 공공인재학부 김혜진 학생(17학번)이 합격하는 등 전북대 공공인재학부의 학생이 다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로스쿨 합격자 이초로 학생(17학번)은 "혼자서 로스쿨 진학을 준비했다면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들고 불안한 마음도 컸을 텐데, 학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 참여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로스쿨 진학 준비를 하는 후배들에게도 학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빠짐없이 참여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문경 학부장은 "그동안 시행해 왔던 맞춤형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며 "코로나19가 진행 중 대면 활동이 확대되면 로법 체험 등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는 16일 혁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동체화페 '꽃전'을 활용한 소액신용대출사업인 '모두의 공간' 시범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꽃전을 활용한 모두의 공간 출범

전주대, 공동체화페 '꽃전' 소액신용대출사업 추진

전주대학교는 16일 혁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동체화페 '꽃전'을 활용한 소액신용대출사업인 '모두의 공간' 시범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전주파티마신협, 혁신종합사회복지관은 협약식을 통해 평화동 지역의 경제·소비활동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모두의 공간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공동체화페 '꽃전'은 전주지역사랑상품권 설계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리빙랩으로 4개월 간 유통된 실험형 지역화폐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민간주도 공동체 화페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파티마신협 양춘제 이사장은 "신협도 조합원들의 적은 돈으로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공간'이 잘 정착하면 좋겠다"며,

첫 공간을 채울 후원금 300만원을 산복자리에 전달했다.

전주대 미래융합대학 한동승 학장은 "지역화폐가 작은 기부로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역의 자선이 됐다"라며, "지역 주민들과 복지관의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며, 사업의 성공과 기부자 모집에도 최선을 다해 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오는 2022년 6월까지 약 7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익산·진안, 학교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익산시와 진안군이 학교연계형(한종목) 스포츠클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6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2021년도 제2차 학교연계형(한종목) 스포츠클럽' 공모에서 익산시와 진안군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앞으로 5년간 각 4억원의 기금을 지원받는다. 익산시는 익산핸드볼스포츠클럽을, 진안군은 진안아이스포츠클럽을 만들 계획이다.

익산시는 전북제일고체육관에서 진안군은 진안고인력도훈관장에서 수준별(취미반·심화반·선수반)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2곳 선정으로 도내에서는 총 20개의 스포츠클럽(종합형 13개·한종목 7개)이 운영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8일 오후 1시부터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2 대입 정시 지원 전략 비대면 입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입시 설명회는 대입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기주도적 진학 계획 수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2022 정시 대비 전북권 및 수도권 대학 지원 전략 안내다.

먼저 서울 대진고 안성환 교사(대교협 대표강사)가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주요사항 분석과 지원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정시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올해 수능 전반의 등급 및 성적분포를 체크해 영역별 유희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구체적인 환산점수를 산출, 실제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전북권 대학과 교대 등에 대한 대입 정시 지원 전략 설명은 전주한일고 김상훈 교사(대입지원단 수능전략팀장)



전북대 한지훈 교수와 변재원 박사. 에소일 우수학위논문상 수상

전북대 한지훈 교수와 변재원 박사(화학공학부 에너지공정공학 연구실)가 에소일에서 수여하는 우수학위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에소일의 후원을 받아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잠재력을 가진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한지훈 교수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합격자는 오는 2022년 2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2022학년도 정시모집 203명 선발

전체 모집인원의 7.2%...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원서접수

전주대학교가 2022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전체 모집인원의 7.2%인 203명(정원 내)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시모집 정원내 주요 전형으로는 수능위주(일반학생전형),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이 있으며, 원서접수는 가군/나군/다군에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수능위주(일반학생전형)의 경우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들만 지원 가능하다.

백분위를 활용하여 선발한다. 선발 방식은 대부분 학과에서 국어/수학/영어 영역 중 백분위 상위 2과목 각 40%, 탐구영역 백분위 상위 1과목 20%를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수학교육과와 과학교육과는 수학 영역이 필수 반영되어 수학 40%, 국어/영어 영역 중 백분위 상위 과목 40%, 탐구 백분위 상위 1과목 20%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학 비적

분 또는 '기하' 영역 응시 수험생은 백분위 점수에 10% 가산하여 성적사정에 활용된다.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을 적용하여 전형총점에 가산한다.

학생부교과(일반학생전형)와 실기/실적(일반학생전형)의 경우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도 지원할 수 있다.

전형별 모집과과와 선발 방식은 정시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주대는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합격자는 오는 2022년 2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

도교육청, 내년 256억원·2023년 399억원 감소 전망... "교부율 인상 등 안정적 재정확보 필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21%에서 25.3%로 인상돼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는 환영할 일이나, 내국세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이 되는 내국세의 증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축소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그 만큼 감소하게 된다. 반면 지방세 확대에 시·도세 전입금은 일부 증가가 예상된다.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축소가 지방

교육재정에 끼치는 영향을 2022년 정부 세입 예산안을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도교육청의 경우 2022년에는 256억원이, 2023년에는 39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학생 1인 당 약 20만원에 가까운 교육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지방교육재정은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고 향후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2년에 교부금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 경제의 근본적 회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저효과와 자산시장 활성화로 인한 것이며, 오히려 금리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모두 상승추세

로 경제적 여건 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여건 개선 및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는 절실하며, 과거 1단계 재정분권 시에도 교부를 조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했던 것처럼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 축소를 보전하기 위한 교부율의 인상이 필요하며, 또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책임제가 확립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은성 기자

황호진 "학교시설복합화, 학교·마을 살릴 수 있어"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이 1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시설복합화'를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시설복합화'는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의 '복합화'를 의미한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교부지 내에 교육·체육·문화·보육·복지·공공 등에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설치·운영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공존하는 것이다.

학교시설복합화가 진행되면, 학교시설의 사회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지고 예산투자의 효율성 또한 확보될 수 있다는 것.

복합시설의 공간은 도서관·미술관·박물관·돌봄시설·어린아동·문화센터·헬스장·소극장·대강당·마을방송국·수영장·체육관·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지만, 공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요구분석을 통해 결정된다.

복합화 사업추진 방식은 최근 '교육청이 학교부지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이 부지에 지자체가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령인구감소로 학교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원도심 지역과 농산어



촌 지역의 학교시설복합화는 학교통합, 작은학교 살리기 등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통합할 등이 더욱 촉진되면서 폐교된 학교 건물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방안과, 존속하는 학교시설에 주변공공시설의 기능을 집약화하는 방안 등 2가지 방향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농산어촌 지역은 서울이 이음 학교, 경기도 통합운영 미래학교와 같은 초·중·중·고 통합학교 추진하고 더불어 학교복합시설을 연계하면 통합할 작은학교도 살리고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